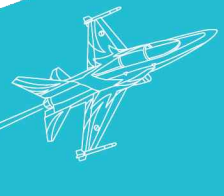


# 서경방송 뉴스IN타임 인터뷰

(2023. 4. 7.(금) 16:00)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  
Sacheon



## #뉴스IN타임 오프닝 멘트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사천 대표 축제인 와룡문화제. 오는 4월 화려한 부활을 알렸는데요. 박동식 사천시장과 함께 축제 일정과 콘텐츠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 우선 축제 명칭과 관련된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2020년에 고려현종대왕축제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지난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모든 축제는 명칭보다는 내용, 즉 킬러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고려현종대왕축제는 역사인물 축제라는 한계성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에 함몰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테마로 명칭을 바꾸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사천와룡문화제라는 큰 그릇에 고려현종 콘텐츠를 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5년 통합 사천시 출범과 함께 삼천포시의 한려문화제와 사천군의 수양문화제를 통합하면서 시작했던 와룡문화제는 사천의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현종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토론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천시 대표 문화축제의 명칭을 ‘사천와룡문화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고려현종대왕축제 추진 당시 준비했던 핵심 콘텐츠들이 이번 축제에 많이 녹아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 와룡문화제는 ‘와룡, 고려현종을 품다’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고려현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려현종 주제관, 일대기존 그리고 현종이 부활시킨 팔관회, 1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연등회가 준비돼 있습니다.

아울러, 고려시대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고려촌 저잣거리를 비롯해 고려현종 어린이 창작 뮤지컬, 고려현종 역사야외극이 펼쳐집니다.

특히, 고려시대 병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고려전통문화체험부터 고려현종 캐릭터 탁본체험까지 다양한 체험 행사에서도 현종의 업적과 발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3.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밖에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먼저 누워있는 용에서 내일을 향한 꿈이 있는 드래곤이라는 미래지향적이고 친숙한 이미지의 글로벌 축제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사천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제25회 사천와룡문화제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각종 전국 대회에서 수상한 팀들의 사천로드퍼레이드를 비롯해 현재 최고 인기 가수라 할 수 있는 장민호와 나태주 등이 출연하는 개막축하공연, 350대 이상의 드론으로 펼치는 불꽃 드론쇼가 사천의 푸른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날엔 큰 인물이 될 사람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와룡의 뜻을 담은 퍼포먼스 공연인 용놀이가 펼쳐지고,

마지막날엔 사천마도갈방아소리와 소리누리전통국악예술단 공연 그리고 트랜스포머 퍼포먼스와 비둘기 마술 등이 있는 와룡 전국 실버마술쇼를 볼 수 있습니다.

4. 사천와룡문화제 기간 함께 열리는 다른 행사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무엇이 있습니까?

예, 사천보건소에서 제1회 사천시 건강한마당을 개최하는데, 건강인형극, 건강강좌, 건강마사지와 걷기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건강비전 선포식도 하고, 건강체험부스도 운영합니다.

특히, 사천비연보존회에서 제51회 사천 전국 연날리기 대회와 함께 이순신 장군 신호연 및 세계연 전시회도 연다고 하니 가족들이 손잡고 나들이를 즐기기에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사천시민들과 서경방송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예, 코로나19 장기화로 2019년 이후 개최되지 못했던  
사천 와룡문화제가 4년만에 돌아왔습니다.

사천 와룡문화제는 풍패지향, 왕의 고향인 사천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서 사주천년의 사천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사천의 대표축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사천시가 주최하고  
사천문화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예전보다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웃음과 재미를, 어르신들에게는 추억을,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서로 화합하는,  
풍패지향 사천의 기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진다고 하니  
많은 분들께서 구경 오셔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 #클로징 멘트

와룡문화제가 오랜만에 개최하게 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시장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